

# 版本狂言記에 보이는 사역표현의

## 4단화 경향에 관한 일고찰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용균\*

kygyun@cau.ac.kr

### Contents

1. 서론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3. 사역표현의 4단화 실태
4. 4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5. 결론

### Abstract

本稿は日本語史的な観点から世話淨瑠璃、上方絵入狂言本などとともに近世前期の代表的な上方語資料である版本狂言記に見られる使役表現の四段化の傾向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特に万治～享保期の版本狂言記4種(『狂言記』(1660)『続狂言記』(1700)『狂言記外五十番』(1700)『狂言記拾遺』(1730))の四段化の実態の分析結果に基づいて、世話淨瑠璃及び上方絵入狂言本の傾向と比較しながら単語、活用形、文体、時期による遅速差とその原因を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会話文を中心にして幾つかの特徴的事実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まず先行研究によって指摘された世話淨瑠璃及び上方絵入狂言本の傾向と大体一致する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 ①単語別に見ると、使役助動詞「する」、「さする」、使役動詞「さする」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②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四段化は地文の四段化よりはよい。  
更に、本稿の考察を通して新しく分かった事実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である。
- ①活用形別に見ると世話淨瑠璃及び上方絵入狂言本の傾向、即ち未然形の四段化が連用形の四段化よりはよい傾向とは異なって命令形、終止・連体形、連用形、未然形の順に四段化が進んでいる。
- ②万治期と元禄期間による四段化の遅速が見られる。

\* 중앙대학교 일어학과 부교수, 일본어학

③ 同時期の上方絵入狂言本の四段化率とはほとんど同じであるが、世話浄瑠璃の四段化よりは高い。

つまり、このような考察を通して版本狂言記に見られる使役表現の四段化は単語、活用形、文体、時期によっていろいろな遅速差を見せながら進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また世話浄瑠璃及び上方絵入狂言本の傾向との共通点と相違点も分かった。

**Key Words** : 狂言記, 上方語, 使役表現, (さ)する, 四段化(교겐키, 가미가타어, 사역 표현, ~하게 하다, 4단화)

## 1. 서론

본고는 일본어사적인 관점에서 사역표현의 변화 시 나타나는 전체상(全體像)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世話浄瑠璃, 上方絵入狂言本 등과 더불어 근세전기의 대표적인 가미가타어(上方語)자료인 版本狂言記<sup>1)</sup>에 보이는 사역표현<sup>2)</sup> 즉, 「(さ)する」의 4단화 경향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사역표현 「(さ)する」의 4단화란 근세전기 가미가타어에 보이는 특징적인 문법적 변화 사실로서 현대 일본어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하2단활용 사역조동사 「する」「さする」 및 사역동사 「さする」가 각각 4단활용 「す」「さす」 및 「さす」로 활용형식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킨다.

특히 이와 같은 활용형식의 변화 사실은 문법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변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가미가타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近松 世話浄瑠璃 6종과 上方絵入狂言本 1종을 조사 자료로 한 奥村三雄의 연구<sup>3)</sup>와 上方絵入狂言本 30종을 조사 자료로 한 山県浩의

1) 종래, 전기 가미가타어 연구 시 版本狂言記를 중심 자료로 사용한 대표적인 논고는 坂梨隆三(1975)의 「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国語と国文学』52-1, pp.47-63.), 小林賢次(1981)의 「版本狂言記にお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新潟大学教育学部高田分校研究紀要』25, pp.11-28.), 金鎔均(2007)의 「版本狂言記에 나타나는 라행下二段活用の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日本語文學』33, 韓國日本語文學會, pp.21-37.) 등 다수가 존재한다.

2) 사역표현에는 「(さ)する」 이외에도 사역조동사 「しむる」가 존재하지만, 이는 4단화가 아닌 하1단화 「しめる」의 경향을 보이는 만큼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3) 奥村三雄(1967) 「近代京阪語の使役辞」『国語国文』36-1, pp.32-45.

연구<sup>4)</sup>, 그리고 近松 世話淨瑠璃 24종과 紀海音 世話淨瑠璃 7종을 조사 자료로 한 근래의 줄고<sup>5)</sup>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는 당시 대표적인 가미가타어자료를 통하여 단어, 활용형, 문체, 위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4단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전술한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 비슷한 시기의 대표적인 가미가타어자료이면서도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万治~享保期(1658~1735)의 版本狂言記 4종을 조사 대상으로, 특히 줄고에 의하여 지적된 전기 가미가타어자료 즉, 世話淨瑠璃에 나타나는 4단화의 경향<sup>6)</sup>과 山県浩에 의하여 지적된 上方絵入狂言本에 나타나는 4단화의 경향<sup>7)</sup>과 비교하면서, 版本狂言記에 보이는 4단화의 실태와 진행 정도, 또한 이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전체적인 경향을 지속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원인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고찰은 지금까지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전기 가미가타어자료인 版本狂言記 4종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당시의 또 다른 가미가타어자료인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에 나타나는 4단화의 경향과

4)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0、pp.36-58.

5) 金銘均(2010a)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4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207-228.

6) 金銘均(2010a) 전계서(5), pp.215-225에 의하면 世話淨瑠璃에 보이는 사역표현의 4단화 경향으로서, ①元禄~宝永期和 正徳~享保期 간에 있어서 4단화의 지속(遲速) 차이가 보인다. ②단어 별로 보면 사역조동사 「する」,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③활용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명령형, 중지·연체형, 미연형, 연용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④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4단화 진행 속도는 지문의 4단화보다 빠르다. ⑤위상적인 면에서 보면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4단화의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등이 지적된다.

7) 山県浩, 전계서(4), pp.40-53에 의하면 上方絵入狂言本에 나타나는 사역표현의 4단화 경향으로서, ①元禄 전기와 元禄 후기~享保期 간에 있어서 4단화의 지속 차이가 보인다. ②단어 별로 보면 사역조동사 「する」,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③활용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중지·연체형, 미연형, 연용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단, 세부적으로 보면 사역조동사 및 사역동사 「さする」에서는 연용형, 미연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④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4단화 진행 속도는 지문의 4단화보다 빠르다. ⑤위상적인 면에서 보면 남성어와 여성어 간에 따른 4단화의 지속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등이 지적된다.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가미가타어 및 문법사의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기술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 즉, 자료 별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조사 자료는 근세전기 즉, 万治~享保期の 가미가타어자료인 版本狂言記의 4종이다. 성립시기(간행시기) 별로 보면 万治期(1658~1660) 자료가 [1]『狂言記』(1660)의 1종, 元禄期(1688~1703) 자료가 [2]『続狂言記』(1700)와 [3]『狂言記外五十番』(1700, 이하 『狂言記外』라고 약칭함)의 2종, 享保期(1716~1735) 자료가 [4]『狂言記拾遺』(1730)의 1종이며, 조사 텍스트는 4종 전부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58』을 사용하였다.

고찰 방법은 版本狂言記 4종에 등장하는 사역표현 「(さ)する」의 하2단활용 예와 4단화 예<sup>8)</sup>를 모두 추출한 다음에,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sup>9)</sup>. 먼저 단어 별로는 사역조동사 「する」와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로 나누어 분석함과 동시에 활용형에서는 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 명령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체적인 면에서는 지문과 회화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版本狂言記 4종을 자료 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각 자료의 성립시기에 따른 지속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万治期の 1종과 元禄期の 2종, 享保期の 1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

8) 단, 당시 「-(さ)しやる」, 「-(さ)しや」와 같이 하2단활용 연용형의 변화형인지, 4단활용의 연용형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와, 「-(さ)せし(과거)」와 같이 하2단활용의 연용형인지, 4단활용의 이연형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당시는 가정조건법이 「미연형+ば」에서 「이연형+ば」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さ)せば」와 같이 접속조사 「ば」가 접속되어 하2단활용의 미연형인지, 4단활용의 이연형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와 「-(さ)すべし」와 같이 추량의 조동사 「べし」가 접속되어 하2단활용의 구 종지형인지, 4단활용의 종지·연체형인지 판별이 어려운 용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9) 단, 版本狂言記의 자료 특성상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등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상에 따른 지속 차이의 검토는 보류하기로 한다.

거로 전술한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에 나타나는 4단화의 경향과 비교하면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 3. 사역표현의 4단화 실태

版本狂言記에 있어서 사역표현의 4단화의 전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万治~享保期の 자료[1]~[4]에 보이는 사역조동사 「する」와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의 하2단활용 예와 4단화 예를 자료 별로 지문과 회화문 및 활용형으로 나누어 <표 1>로 나타내고, 또한 <표 1>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4단화의 경향 파악을 위하여 회화문의 4단화율을 <표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역표현의 4단화 실태

자료			활용	사역조동사				사역동사	
				する		さする		さする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万治	[1] 狂言記 (1660)	지문	미연형			1			
			연용형	7					
		회화문	미연형	30	1	1		1	
			연용형	11	16	5	1	1	1
			중지·연체형	8	4			2	
			이연형	2					
			명령형					1	
元禄	[2] 続狂言記 (1700)	지문	미연형	2					
			연용형	7					
			중지·연체형	5					
			명령형		1				
		회화문	미연형	20	11	6		4	
			연용형	16	15	1	6		
			중지·연체형	5	7				
			명령형	6	9	1			

元禄	[3] 狂言記外五十番. (1700)	지문	미연형	1					
			종지·연체형	1					
		회화문	미연형	12	2			2	
			연용형	5	9			1	1
			종지·연체형	1	3				
명령형	2	7			1				
享保	[4] 狂言記拾遺. (1730)	지문	미연형	1					
			연용형	2	1				
			명령형	1					
		회화문	미연형	16	6	1		3	
			연용형	14	15			1	
			종지·연체형	1	8				
			이연형	1					
명령형	2	8	1		2				

<표 2> 사역표현의 4단화율(회화문)

활용형	활용		사역조동사				사역표현			
	사역조동사		사역조동사		사역조동사		사역표현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미연형 (4단화율)	78	20	8		86	20	10		96	20
		20.4		0		18.9		0		17.2
연용형 (4단화율)	46	55	6	7	52	62	3	2	55	64
		54.5		53.8		54.4		40.0		53.8
종지·연체형 (4단화율)	15	22			15	22	2		17	22
		59.5				59.5		0		56.4
이연형 (4단화율)	3				3				3	
		0				0				0
명령형 (4단화율)	10	24	2		12	24	4		16	24
		70.6		0		66.7		0		60.0
계 (4단화율)	152	121	16	7	168	128	19	2	187	130
		44.3		30.4		43.2		9.5		41.0

#### 4. 4단화의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표 1>의 사역표현의 4단화 실태와 전체적인 분석 결과인 <표 2>의

4단화율, 그리고 자료 4종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항 즉, 版本狂言記에 보이는 사역표현의 4단화 경향<sup>10)</sup>에 대하여 회화문<sup>11)</sup>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단어 별로 보면 사역조동사 「する」,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② 활용형에서 보면 명령형, 중지·연체형, 연용형, 미연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sup>12)</sup>.
- ③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4단화 진행 속도는 지문의 4단화보다 빠르다.
- ④ 万治期和 元禄期 간에 있어서 뚜렷한 4단화의 지속 차이가 보인다.
- ⑤ 동시기(同時期)의 가미가타어자료인 上方絵入狂言本과는 거의 대등하지만, 世話浄瑠璃의 4단화율보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일본어의 변천사를 보면 일률적인 변화가 아닌, 각 단어마다 다양한 지속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단어에 따른 지속 차이는 상2단활용동사와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sup>13)</sup>, 4단활용동사(「飽く」, 「借る」, 「染む」, 「足る」)의 상1단화<sup>14)</sup>, ㅅ행하2단활용동사(「合する」,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의 4단화<sup>15)</sup>, ㅏ행변격활용동사(「死ぬる」, 「去ぬる」)

10) 단, 사역표현의 경우 대세를 이루고 있는 4단화가 아닌 하1단화 경향을 보이는 용례도 등장한다. 다만, 이와 같은 용례는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版本狂言記 4종을 분석한 결과, 자료 [1]의 회화문에 사역조동사의 용례(「せる」)가 불과 1례 보일 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大骨折らせ、大汗を流させ、前代未聞の曲者、(狂言記、12-6)

11) 전술한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문의 경우는 4단화 예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체 간의 비교 외에는 논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12) 이연형의 경우에는 전술한 <표 1>과 <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 외 활용형에 비하여 용례수가 적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

13) 奥村三雄(1968)의 「所謂二段活用的一段化について-方言の事実から史的考察へ-」(『近代語研究』2, 近代語学会 編, p.222.)에 의하면 상2단활용동사의 1단화 진행 속도는 하2단활용동사의 1단화보다 빠르다고 지적된다.

14) 金銘均(2006)의 「江戸語에 나타나는 四段活用動詞의 上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日語日文學研究』58-1, 韓國日語日文學會, pp.9-12.)에 의하면 4단활용동사의 상1단화는 「借る」, 「染む」, 「飽く」, 「足る」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15) 金銘均(2009)의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ㅅ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日本文化學報』43, 韓國日本文化學會, pp.11-13.)에 의하면 ㅅ행하2단활용동사의 4단화는 「遣する」, 「上する」, 「任する」, 「合する」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의 4단화<sup>16)</sup>, 라행하2단활용(「おつしやるる」「くださるる」「しやるる」「なさるる」「めさるる」)의 4단화<sup>17)</sup>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①은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역표현의 4단화 진행 과정 속에서 단어 간의 지속 차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경향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술한 <표 2>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역조동사의 4단화율(43.2%)이 사역동사의 4단화율(9.5%)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역조동사 「する」(44.3%), 사역조동사 「さする」(30.4%), 사역동사 「さする」(9.5%)의 4단화율 순으로 보여 단어 간의 지속 차이가 인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각 단어의 활용형 간 비교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여기에서 경향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版本狂言記 4종 간의 자료 별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 1>을 토대로 『狂言記』 『続狂言記』 『狂言記外』 『狂言記拾遺』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版本狂言記의 내부 간에 따른 단어의 4단화율(회화문)

자료	단어	사역조동사						사역동사		
		する			さする			さする		
		하2단	4단	4단화율	하2단	4단	4단화율	하2단	4단	4단화율
[1]『狂言記』 (1660)		51	21	29.2	6	1	14.3	5	1	16.7
[2]『続狂言記』 (1700)		47	42	47.2	8	6	42.9	4		0
[3]狂言記外五十番』 (1700)		20	21	51.2				4	1	20.0
[4]『狂言記拾遺』 (1730)		34	37	52.1	2		0	6		0

16) 金銘均(2005)의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ㄱ행변격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四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學報』 63, 韓國日本學會, pp.6-7.)에 의하면 「去ぬる」의 4단화 진행 속도는 「死ぬる」의 4단화보다 빠르다고 지적된다.

17) 山県浩(1983)의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ラ行下二段活用四段化の場合-」(『文献探究』 11, pp.65-68.)에 의하면 라행하2단활용의 4단화는 「おつしやるる」·「しやるる」, 「めさるる」, 「くださるる」, 「なさるる」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자료 별 분석을 통해서도 자료 4종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단어 별로 보면 『狂言記』의 경우 사역조동사 「する」(29.2%), 사역동사 「さする」(16.7%), 사역조동사 「さする」(14.3%)의 4단화를 순으로, 『続狂言記』의 경우 사역조동사 「する」(47.2%), 사역조동사 「さする」(42.9%), 사역동사 「さする」(0%)의 4단화를 순으로, 『狂言記外』의 경우 사역조동사 「する」(51.2%), 사역동사 「さする」(20.0%)의 4단화를 순으로, 『狂言記拾遺』의 경우 사역조동사 「する」(52.1%), 사역조동사(0%)·사역동사(0%)의 4단화를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狂言記』의 경우 사역동사 「さする」가 사역조동사 「さする」의 4단화율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보인다는 점 뿐이다.

실제로 경향①의 반영 즉, 단어 간의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동일 인물에 의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殿)今日はくれずにやれば、舞い戻り舞い戻り致す、飲ましてやりませう  
(狂言記、17-5)
- (殿)やい、そこな物、鬼に番をさせたらば、人出入も有まひ、(上同、19-2)
- [3](大名)なんちが分でうかがはせ (狂言記外五十番、217-5)
- (大名)此中の五十疋の馬を引出して湯洗いをさせい、(上同、217-9)
- [4](主)また鬨斗付に刀を作て取らそふと思ふ程に、(狂言記拾遺、565下5)
- (主)それにつき、此度は鎧を比べさせられふとある、(上同、579上12)

이 중에서 자료[1]과 [3]은 사역조동사 「する」와 사역동사 「さする」, [4]는 사역조동사 「する」와 「さする」 간에 있어서 4단화의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①은 특징적인 경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世話浄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단어 간의 지속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각 단어의 형태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사역조동사 「する」의 4단화 진행 속도가 사역조동사 「さする」의 4단화보다 빠른 원인은 형태적

으로 「書かする」가 「起きさする」보다 4단활용동사의 유추가 용이하다는 점과 「起きさする」보다 「書かする」가 한 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sup>18)</sup>에서, 이와는 반대로 사역동사 「さする」의 4단화 진행 속도가 사역조동사 「さする」의 4단화보다 느린 원인은 후자보다 전자가 동사로서의 독립성이 강한 점이 변화 시 오히려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sup>19)</sup>과 당시 2단활용동사의 1단화의 대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sup>20)</sup>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향② 또한 4단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활용형 간에 따른 지속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이와 같은 경향은 전술한 <표 2>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역표현 전체를 보면 명령형(60.0%), 중지·연체형(56.4%), 연용형(53.8%), 미연형(17.2%)의 4단화를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역조동사 「さする」와 사역동사 「さする」의 진행 속도가 사역조동사 「する」의 4단화보다 느리고, 용례수도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좀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명령형(70.6%), 중지·연체형(59.5%), 연용형(54.5%), 미연형(20.4%)의 4단화를 순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경향②의 반영 즉, 활용형 간의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근접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法花)いや、ぜ<sup>い</sup>ひと<sup>も</sup>戴<sup>い</sup>かせう、こり<sup>や</sup>こり<sup>や</sup>、は、嬉<sup>うれ</sup>し<sup>や</sup>、思<sup>おも</sup>ふ<sup>ま</sup>ま<sup>に</sup>戴<sup>い</sup>かした (狂言記、25-9)

[1]'(殿)大事の主殿に大骨を折らせ、大汗をかす事、(上同、171-15)

[2](ア)尤それは聞こへたれ共、あれは某が秘藏の驚じや、刺さす事はならぬ……  
(ア)それなら、成程刺させふ、(続狂言記、358下2)

[2]'(シ)酒はくれず、振舞は食はせずと存じ、……取らぬとは言はせぬ、……息

18) 山県浩, 전계서(4), p.41.

19) 山県浩, 전계서(4), p.41.

20) 金鎔均(2010a), 전계서(5), p.218.

がはづんで、物が言はれぬ、やれ先物を言はせ言はせ (上同、376上2)

이 중에서 자료[1]은 연용형과 미연형, [1]'는 종지·연체형과 연용형, [2]는 종지·연체형과 미연형, [2]'는 명령형과 미연형 간에 있어서 4단화의 지속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예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②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명령형, 종지·연체형, 미연형, 연용형의 4단화율 순으로 보이는 世話浄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の 경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보면 연용형의 4단화율이 미연형의 4단화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世話浄瑠璃와 上方絵入狂言本の 경향 즉, 미연형의 4단화 진행 속도가 연용형의 4단화보다 빠르다는 사실은 후기 가미가타어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sup>21)</sup>인 만큼 더욱 주목을 끈다.

그럼 여기에서 연용형과 미연형 간의 지속 차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版本狂言記 4종 간의 자료 별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전술한 <표 1>을 토대로 『狂言記』 『続狂言記』 『狂言記外』 『狂言記拾遺』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版本狂言記의 내부 간에 따른 활용형의 4단화율(회화문)

자료	활용형	미연형			연용형		
		하2단	4단	4단화율	하2단	4단	4단화율
[1]『狂言記』 (1660)		32	1	3.0	17	18	51.4
[2]『続狂言記』 (1700)		30	11	26.8	17	21	55.3
[3]『狂言記外五十番』 (1700)		14	2	12.5	6	10	62.5
[4]『狂言記拾遺』 (1730)		20	6	23.1	15	15	50.0

21) 金銘均(2010b)의 「近世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四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文學報』 46, 韓國日本文學會, pp.169-170.)에 의하면, 활용형에서는 명령형·종지·연체형, 미연형, 연용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된다고 지적된다.

<표 4>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료 별 분석을 통해서도 자료 4종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狂言記』에 보이는 연용형의 4단화율(51.4%)은 미연형의 4단화율(3.0%)보다, 『続狂言記』에 보이는 연용형의 4단화율(55.3%)은 미연형의 4단화율(26.8%)보다, 『狂言記外』에 보이는 연용형의 4단화율(62.5%)은 미연형의 4단화율(12.5%)보다, 『狂言記拾遺』에 보이는 연용형의 4단화율(50.0%)은 미연형의 4단화율(23.1%)보다 여전히 우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版本狂言記의 경우 世話浄瑠璃와 上方絵入狂言本, 더 나아가 후기 가미가타어와는 달리 연용형의 4단화 진행 속도가 미연형의 4단화보다 빠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작자의 언어사용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湯沢幸吉郎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版本狂言記에는 당시 구어에서는 거의 쇠퇴한 것으로 보이는 4단활용의 경어(존경)조동사 「(さ)す」의 연용형에 「ます」계가 접속된 것(예를 들면 「言はします(ませ)」「行かします(ませ)」「見さします(ませ)」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데<sup>22)</sup>, 이와 같은 언어사용 의식이 동일한 형태인 사역표현 「(さ)する」에도 영향을 미쳐 연용형의 4단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령형과 종지·연체형의 4단화의 진행 속도가 그 외 활용형의 4단화보다 빠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4단화 과정 속에서 어미 탈락이 용이했다<sup>23)</sup>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명령형 「-(さ)せい」「-(さ)せよ」→「-(さ)せ」의 변화 과정 속에서 어미 「い」「よ」의 탈락이, 이와 마찬가지로 종지·연체형도 「-(さ)する」→「-(さ)す」의 변화 과정 속에서 역시 어미 「る」의 탈락이 용이했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근접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シテ)やあ、この上下小袖もやつて、入間ことば聞かふ、さあさあ腕がせ脱がせ、(続狂言記、444上3)

22)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pp.362-423.

23) 金鎔均(2010a), 전제서, p.220.

[3](大名)舞はせ舞はせ (狂言記外五十番、325-6)

[4](シテ)憎いやつの、過怠に此肩を泊まりて持たすぞ……(チヤ)先待ちやれ、持  
たす筈なら持たそふ、(狂言記拾遺、543上13)

자료[2]와 [3]은 명령형의 4단화 예가 집중적으로, [4]는 종지·연체형의 4단화 예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그 외 활용형에 비하여 진일보한 명령형과 종지·연체형의 4단화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경향③ 즉,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4단화 진행 속도는 지문의 4단화보다 빠르다는 사실은 일본어 변천사를 통하여 거의 예외없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향③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4단화율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 1>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 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문과 회화문의 4단화율

문체	활용	사역조동사				사역조동사		사역동사		사역표현	
		する		さする		합계		さする		합계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지문 (4단화율)		27	2	1		28	2			28	2
			6.9		0		6.7				6.7
회화문 (4단화율)		152	121	16	7	168	128	19	2	187	130
			44.3		30.4		43.2		9.5		41.0

<표 5>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경향③은 뚜렷한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사역표현 전체적으로 보면 회화문의 4단화율(41.0%)은 지문의 4단화율(6.7%)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단어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회화문에 있어서 사역조동사 「する」(44.3%) 및 「さする」(30.4%)의 4단화율은 지문에 있어서 사역조동사 「する」(6.9%) 및 「さする」(0%)의 4단화율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③은 世話浄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지속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본래 지니고 있는 문체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회화문의 경우는 당시 사용된 언어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데 비하여, 지문의 경우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여 당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sup>24)</sup>, 상대적으로 4단화의 진행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향④는 전기 가미가타어 내부에서도 시간적인 추이(推移)에 따라 4단화의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료[1]과 [4] 간에 있어서는 약 70년 정도의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경향④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술한 <표 1>을 토대로 성립시기에 따른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万治期 1종과 元禄期 2종, 그리고 享保期 1종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6>으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

<표 6> 版本狂言記의 성립시기에 따른 4단화율(회화문)

자료 \ 활용	사역조동사				사역조동사 합계		사역동사 さする		사역표현 합계	
	する		さする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万治期 1種 (1660) (4단화율)	51	21	6	1	57	22	5	1	62	23
		29.2		14.3		27.8		16.7		27.1
元禄期 2種 (1700) (4단화율)	67	63	8	6	75	69	8	1	83	70
		48.5		42.9		47.9		11.1		45.8
享保期 1種 (1730) (4단화율)	34	37	2		36	37	6		42	37
		52.1		0		50.7		0		46.8

<표 6>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万治期 대 元禄期の 대립적인 양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사역표현 전체적으로 보면 元禄期和 享保期 간에 있어서는 거의 지속 차이가 보이지 않는 대등한 양상을 보이지만, 万治期和 元禄期 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元禄期の 4단화율(45.8%)은 万治期の 4단화율(27.1%)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우위는 사역동사를 제

24) 金谿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외한, 단어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어 전자의 사역조동사 「する」(48.5%) 및 「さする」(42.9%)의 4단화율은 후자의 사역조동사 「する」(29.2%) 및 「さする」(14.3%)의 4단화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만큼 경향④는 특징적인 경향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특히 위와 같은 사실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중요한 의미로 여겨지는 것은 版本狂言記에 한정하여 보면 전기 가미가타어의 경우 万治期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元禄期는 병용기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향⑤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경향⑤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앞선 万治期の 『狂言記』를 제외한, 元禄~享保期の 版本狂言記 3종(『続狂言記』 『狂言記外』 『狂言記拾遺』)과 동시기의 가미가타어자료인 世話浄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7>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 版本狂言記와 世話浄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の 4단화율(회화문)

자료	활용	사역조동사				사역조동사 합계		사역동사 さする		사역표현 합계	
		する		さする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하2단	4단						
版本狂言記 3種 (1700~1730) (4단화율)		101	100	10	6	111	106	14	1	125	107
			49.8		37.5		48.8		6.7		46.1
上方絵入狂言本 30種 (1688~1729) <sup>25)</sup> (4단화율)		140	158	22	10	162	168	69	8	231	176
			53.0		31.3		50.9		10.4		43.2
世話浄瑠璃 31種 (1703~1731?) <sup>26)</sup> (4단화율)		376	113	44	7	420	120	103	7	523	127
			23.1		13.7		22.2		6.4		19.5

<표 7>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은 동시기의 가미가타어자료라고 해도 각 자료에 따라 4단화의 진행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版本狂言記는 上方絵入狂言本과는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世話浄瑠璃보다는 진일보한 양상을 보인다. 사역표현 전체적으로 보면 版本狂言記의

25) 山県浩, 전계서(4), p.53.

26) 金谿均(2010a), 전계서(5), p.214.

4단화율(46.1%)은 世話淨瑠璃의 4단화율(19.5%)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우위는 단어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거의 비슷한 4단화율을 보이는 사역동사를 제외한, 版本狂言記의 사역조동사 「する」(49.8%) 및 「さする」(37.5%)의 4단화율은 世話淨瑠璃의 사역조동사 「する」(23.1%) 및 「さする」(13.7%)의 4단화율보다 여전히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경향⑤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版本狂言記의 4단화율이 동시기의 대표적인 가미가타어 자료임과 동시에 구어자료로서 그 가치가 널리 인정되는 世話淨瑠璃의 4단화율보다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작자의 언어사용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역표현의 4단화에 관한한 世話淨瑠璃의 작자는 당시 구두어를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4단화에 대한 반성적 의식 즉, 저항감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4단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版本狂言記의 작자는 당시 구두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 4단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上方絵入狂言本の 4단화율이 世話淨瑠璃의 4단화율보다 높은 원인도 알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어 변천사 연구 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단편적이거나 획일적인 자료가 아닌, 가능한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일깨워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5. 결 론

지금까지 일본어사적인 관점에서 世話淨瑠璃, 上方絵入狂言本 등과 함께 근세전기 가미가타어자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版本狂言記의 4단화 경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万治~享保期の 版本狂言記 4종(『狂言記』『続狂言記』『狂言記外五十番』『狂言記拾遺』)의 4단화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7) 金鎔均(2010a), 전게서(5), p.225에서 이미 上方絵入狂言本 작자의 언어사용 의식과 관련지어 논한 바가 있다.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の 경향과 비교하면서 단어, 활용형, 문체, 시기 간에 따른 지속 차이와 그 원인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회화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선행 연구에 의하여 지적된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과 대체로 경향을 같이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단어 별로 보면 사역조동사 「する」, 「さする」, 사역동사 「さする」의 순으로 4 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②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4단화 진행 속도는 지문의 4단화보다 빠르다.

그리고 版本狂言記의 고찰을 통하여 새롭게 알게된 사실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활용형에서 보면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の 경향 즉, 미연형의 4단화 진행 속도가 연용형의 4단화보다 빠른 경향과는 달리 명령형, 종지·연체형, 연용형, 미연형의 순으로 4단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②万治期和 元禄期 간에 있어서 대립적 양상 즉, 뚜렷한 4단화의 지속 차이가 보인다.
- ③上方絵入狂言本과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世話淨瑠璃의 4단화율보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사역표현의 4단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나라(奈良)시대(710-794) 이후 오랜 기간 정착되어 당시 세력이 강한 卍행4단활용동사(「照らす」 「悩ます」 등)의 유추(類推)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고의 고찰 결과 4단화의 진행 과정은 단순한 변화 과정이 아닌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어, 활용형, 문체, 성립시기에 따라 다양한 지속 차이를 보이면서 4 단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世話淨瑠璃 및 上方絵入狂言本の 경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고찰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자료를 좀 더 확대하여 당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연형과 연용형 간의 지속 차이와 위상에 따른 지속 차이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奥村三雄(1967) 「近代京阪語の使役辞」 『国語国文』 36-1、pp.32-45.
- \_\_\_\_\_ (1968) 「所謂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方言的事実から史的考察へ-」 『近代語研究』 2、近代語学会編、p.222.
- 小林賢次(1981) 「版本狂言記における二段活用の一段化について」 『新潟大学教育学部高田分校研究紀要』 25、pp.11-28.
- 坂梨隆三(1975) 「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 『国語と国文学』 52-1、pp.47-63.
- 山県浩(1982)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サ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0、pp.36-58.
- \_\_\_\_\_ (1983) 「活用型の変化から見た上方絵入狂言本-ラ行下二段活用の四段化の場合-」 『文献探究』 11、pp.65-68.
- 湯沢幸吉郎(1982) 『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pp.362-423.
- 金鎔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さ)する와 (ら)る 間の 遅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 \_\_\_\_\_ (2005)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ナ行変格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四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63, 韓國日本學會, pp.6-7.
- \_\_\_\_\_ (2006) 「江戸語에 나타나는 四段活用動詞의 上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語日文學研究』 58-1, 韓國日語日文學會, pp.9-12.
- \_\_\_\_\_ (2007) 「版本狂言記에 나타나는 라行下二段活用の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語文學』 33, 韓國日本語文學會, pp.21-37.
- \_\_\_\_\_ (2009)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文化學報』 43, 韓國日本文化學會, pp.11-13.
- \_\_\_\_\_ (2010a)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研究』 4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207-228.
- \_\_\_\_\_ (2010b) 「近世後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使役表現「(さ)する」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四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46, 韓國日本文化學會, pp.169-170.

- ❖ 투고일 : 2010. 6. 30.
- ❖ 심사일 : 2010. 7. 14.
- ❖ 심사완료일 : 2010. 8. 2.